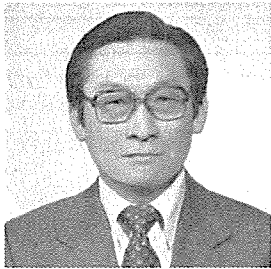


“創立精神 되새겨 國家發展에 寄與”

- 未來志向의 科學技術 振興策개발할터



趙完圭 會長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李台燮 과학기술처장관, 來賓 그리고 元老, 先輩, 同僚 科學技術人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總本山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科學技術 振興暢

達에 소임을 다해온 本聯合會의 創立 20周年을 경축하는 식전에서 紀念辭를 올리게 된것을 본인은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격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來賓, 科學技術人 여러분!

오늘 뜻깊은 성년잔치를 맞이하여 본인은 무한한 기쁨과 긍지를 느끼면서 지난 20년 동안 科總의 성장발전과 육성에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各界指導者, 政府當局, 그리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오늘과 같이 성숙한 科學技術界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신 科學技術界 元老, 先輩, 同僚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科總은 지난 1966년 5월, “발명의 날”에 개최된 第1回 全國科學技術者大會에서 「國內 科學技術團體의 유기적인 연합으로 科學技術振興의 計劃 및 實踐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굳은 결의에 따라 9월 24일 歷史的인 創立을 보게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科總이 創立되던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여서 經濟再建을 위한 사업이 막 궤도에 오르려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국민 1인소득이 125달러였고, 輸出高가 단지 2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했던 가

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科學技術人들은 낙후한 科學技術水準, 영세한 科學技術人力과 研究開發投資, 부실한 연구환경 등이 경제발전을 통한 祖國近代化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절감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학기술의 先進化와 國家經濟發展에 기여하게 하자는 사명의식과 勳의 자세를 다졌음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科總은 이러한 歷史的, 時代的 소명을 받고 태동하였으며 그 創立精神은 지난 20년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면면히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科總은 오늘을 맞이하여 지난 20년간의 활동과 업적을 스스로 과찬하거나 자만에 빠지기 보다는 21세기 화려한 조국건설을 위한 굳건한 발판의 마련과 새로운 봉사를 다짐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科總이 이룩한 業績과 成果를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科總은 시의에 적절한 科學技術振興施策을 科學技術界의 衆知로 수렴하여 政策當局에 꾸준히 건의함으로써 國家의 科學技術政策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항상 善意의 壓力團體 구실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創立直後 科學技術振興法과 科學技術教育振興法 制定의 실현에 牽引役割을 하였으며 또한 科學技術處의 설치, 科學의 날 및 科學의 달 制定, 科學技術開發投資의 확대추구 등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政策建議과 이를 실행토록함은 물론 科學技術人의 信條를 제정하여 科學技術人으로서의 倫理 및 奉仕를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科學技術會館의 건립으로 科學技術人의 단합을 꾀하고, 나아가 각종 사업을 통하여 科學技術風土를 조성하는 등 그동안 科總은 뚜렷하고 알찬 업적을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科總은 國策研究課題를 도출하고 이의 결실을 위한 戰略을 樹立, 建議하는 등 우리나라 科學技術界의 求心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일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80년대초, 國家次元의 科學技術投資의 조정 및 심의기구설치의 필요성을 科學技術人의 總意로 建議한 바에 따라 國家元首가 주재하는 技術振興擴大會議과 技術振興審議會 등 일련의 기구를 설치하게 된 것은 科總의 또 다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創立當時 90개에 불과했던 科總의 會員團體가 20년을 맞이하는 오늘 2백개에 달하는 科學技術關係學會와 研究團體를 망라한 방대한 기구로 성장한 것도 자랑으로 삼고자 합니다.

科學技術의 진흥이 學術團體의 유기적 유대와 부단한 學術情報의 交流에 있다고 볼 때 科總은 그같은 기회를 수시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제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고 하겠으며 學會의 발전이 곧 科總의 발전과 일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會員團體에 대한 지원이 충분 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 나름대로 최선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974년 최초로 가졌던 科總主催의 在外韓國科學技術者와 國內科學技術者가 참여하는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綜合學術大會는 금년으로 13년째가 됩니다. 이 學術大會는 世界 여러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同胞科學技術者를 招請하여 國內科學技術者와 자리를 함께 하여 學術情報를 교환하게 하며, 애로기술의 전수기회를 마련하는 자리로서 이제는 國內 唯一의 그리고 가장 권위있는 대규모 綜合學術行事로 발전하여 學界 및 産業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밖에도 科總은 지난 20년, 새마을技術奉仕團을 통하여 農漁民에게 技術指導를 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86년 4월, 元老科學技術諮問團을 창설하여

부족한 高級科學技術人力을 보완하는 한편 國民生活의 科學化運動, 科學技術用語의 制定, 韓國科學技術 30年史 및 科學技術人名事典의 발간 등 科學技術振興과 관련된 事業을 펼쳐오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科總이 그동안 각종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소기의 成果와 實績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政府의 따뜻한 聲援과 元老先輩科學技術人의 헌신적인 봉사와 그리고 會員團體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주년의 한 획을 그으면서 찬란한 2천년대 先進祖國의 구현과 새로운 비약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科學技術人이 일치 단결하여 새로운 각오로 맡은 소임에 정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科總 育成發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부, 관계기관을 비롯한 科學技術人 여러분에게 깊은 謝意를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創立20周年을 기념하여 特別講演을 맡아주신 安秉煜教授와 金東漢博士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科學技術의 發展速度가 급속한 때, 자칫 人間喪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써 이런 문제는 우리 科學技術界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홀히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특히 우리나라 哲學界의 元老이신 安秉煜博士를 모시고 “과학과 휴머니즘”이라는 演題로 말씀을 듣게된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써 이 두분께 거듭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항상 幸運이 가득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 長 趙 完 圭